

철수: 엄마. 저 내일 여섯 시에 깨워 주세요.

엄마: 여섯 시? 아침 여섯 시?

철수: 네.

영희: 엄마, 재 깨워 주지 마! 재 백 번 깨워도 못 일어나. 야, 김철수! 너 알람 맞춰 놓고 자!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.

철수: 아, 아니야! 이번엔 진짜 일어날 수 있어. 엄마 꼭 깨워 주세요.

엄마: 알았어, 알았어.

영희: 아, 엄마! 그냥 알람 맞추라고 해!

철수: 아, 누나. 진짜 왜 그래!

엄마: 둘 다 조용히 해! 딱 여섯 시에 깨우면 돼?

철수: 네. 딱 여섯 시요! 그때처럼 또 다섯 시 반인데 여섯 시라고 깨우면 안 돼요!

엄마: 너 깨워도 잘 못 일어나니까 그렇지!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려고?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서 뭐 하게?

철수: 아, 내일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.

엄마: 어디로?

철수: 설악산이요.

엄마: 이 추운 날 설악산에 왜 가?

철수: 그냥 등산하러 가요.

엄마: 동네 뒷산도 잘 못 오르면서 설악산이 어디라고 가, 이 추위에!

철수: 아, 아니에요. 할 수 있어요!

엄마: 너... 그 같은 과 아름답가 하는 애가 간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?

철수: 아... 아... 아니에요! 그냥 등산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. 어쨌든 내일 꼭 깨워 주세요!